

요양병원 간병 문제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두 가지 가치로 준비하는 미래 -사회적기업 (주)워드유-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진경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국내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20년 807만 명에서 3년 만에 약 30%가 증가한 수치다.

고령화 정도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 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4~20%면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9년 기준 14.9%로 이미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오는 2025년에는 국내 노인인구 1,000만 명(고령화율 20.3%)을 돌파하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회 흐름에 따라 노인 일자리나 노인 돌봄 등의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션 MISSION

서로 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비전 VISION

요양병원의 간병문화를 개선하고,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존엄케어 실현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 구현

(주)워드유 미션과 비전



(주)위드유(대표 김영식)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에 대한 고민에서 설립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김영식 대표는 요양병원에 15년 정도 근무하며 요양병원의 실상을 잘 알게 되었다. 요양병원에서 초기에는 간병인으로 한국 사람을 썼는데 비용 부담이 너무 커 결국은 다 포기했다. 그 사이를 채우게 된 것이 바로 중국인이었다. 병원과 환자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됐지만, 그분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24시간, 365일을 병실에서 환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해야 하니 인권이라든지, 환자 관리의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주)위드유 요양보호사 활동1



(주)위드유 요양보호사 활동 2

현재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약 16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 중 요양시설, 요양원, 재가 서비스 등을 통해 일하는 인원은 약 40만 명 정도. 나머지 120만 명의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그 뒷세대의 돌봄 또한 가능해져 60세부터 약 90세까지, 이 세대 간의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김영식 대표의 의견이다.

간병인은 직업의 특수성 상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일본에서는 일부 목욕시키는 기계라든가, 로봇 등이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환자 돌봄의 대부분은 신체 수발이기 때문에 인력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위드유 김영식 대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요양병원 한 층, 10개 병실을 케어하는데 3교대를 해야 하니까 간병인이 약 30명 정도 필요하다는 예상을 했다. 그런데 막상 10명을 지원받으니 너무 막막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10명의 인원도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지원받은 케이스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을 찾는 것이 문제였다. 간병비를 많이 받으면 병원비가 입원 환자나 보호자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간병비를 많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병원이 충청남도에 없었다. 그런데 이화피닉스요양병원은 생각이 좀 달랐다고 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위드유를 만난 것이었다. 간병 수입 외에 병원비에서 좀 보태고 재정 지원금까지 합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방법을 찾는 데 3개월이 걸렸다. 천안 아산에서는 그만한 여력이나 생각을 하는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없었는데 이화피닉스요양병원에서 선투자를 하면서 사업이 성사되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김영환 과장도 김영식 대표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요양병원협회, 의사, 전국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요양병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사업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본 사업이 시행되어 이화피닉스요양병원에서는 주간에는 14명의 내국인 간병인이 환자들에게 종합적인 존엄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3명이 기초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형태로 전환하자 환자들의 기저귀와 패드, 물티슈 등의 배출량과 환의, 시트, 이불 등 세탁량이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정서적 변화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달라져 식 사랑도 늘어 존엄케어 서비스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 차이와 과도한 노동량으로 환자들의 돌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던 외국인 간병인과 달리, 전문 교육을 이수한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케어서비스는 환자들이 누려야 할 존엄의 권리가 보장될 만큼 만족스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위드유 영양보호사 활동3



(주)위드유 영양보호사

현재 위드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개 영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자들도 있고, 초보인 분들도 있다. 일하시는 분은 14분인데 하시는 일이 대부분 신체 수발이다 보니 체력을 많이 요구한다. 하지만 이 일은 돈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일하시는 분들이 심성이 어느 정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자격증을 뺏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김영식 대표는 간병인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간병 급여화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은 사람이 알고, 공감하고, 많은 병원이 작은 부분에서라도 시작하게 된다면 간병 급여화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재정 지원을 받아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재정 지원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한 간병 급여화가 현실화돼서 더 많은 병원에 정식 자격을 갖춘 영양보호사가 투입되는 것이 위드유의 목표이기도 하다.

김영식 대표는 또한 사회적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윤 창출에만 전념하는 기업들과 경쟁하며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양립시켜나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도 많았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본래 목적이었던 것들이나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만만치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범위 안에서 서로의 차이와 필요를 나누며 의지하고, 서로 도와 나가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달려가는 내일의 우리에게 요양병원 간병 문제와 신중년 일자리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위드유와 같은 사회적기업의 작은 발걸음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